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76
----------	------

발의연월일 : 2024. 9. 12.

발 의 자 : 김태선·이기현·권철승  
정준호·김영배·장철민  
김태년·오세희·한민수  
김준형·김성희·박 정  
이용우·최기상·맹성규  
이훈기·박균택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날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u>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날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u>